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지원과 배려의 아이콘으로

우남희 소장

영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특히 이 시기는 성장·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며, 동시에 성장·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요인이 발견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통해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많은 유연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에서는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재정 지원을 통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서비스 이용 확대를 가져와 부모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만 3~5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준의 영유아 학대 등 강력 사건들을 심심찮게 접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대개 일반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이제는 보편적 보육·교육 속에서 관심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취약계층 가정과 그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함을 느낀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다원화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이외에도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입양가정, 미혼모가정 등 양육자에 따른 취약계층 가정, 장애영유아 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사회적 편견과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정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취약계층 가정이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은 영유아가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결국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들 가정은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으로 영유아에 대한 양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육·교육이나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 결국 영유아기에 경험해야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쳐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거나 낮을 수도 있어 건강한 아이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과 동시에 다양한 보육·교육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양육자에 따른 취약계층 가정 이외에 국제결혼, 외국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부모의 언어적, 문화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가정의 영유아 또한 부모들처럼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취약계층의 영유아에게는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사와의 적극적 상호작용과 함께 또래 간 상호작용, 놀이 및 학습 활동을 통한 적응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양육·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영유아가 적기에 보육·교육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5차년도에 걸쳐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여겨지는 계층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는 5개년에 걸쳐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장애 영유아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 농어촌 영유아, 저소득층 영유아 등 개별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보편적 보육·교육 시대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육아지원 정책이다. 취약계층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등 취약계층과 그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영유아가 경제적, 신체적, 언어적, 문화적 이유로 적절한 교육·보육서비스와 양육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에는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나오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닌, 나를 비롯한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으로서 지원과 배려의 아이콘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